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위로 제목 :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성경: 욥기 19장1-13절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뺏듯 뺏으시고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뜯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낮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19:1-13)

욥기는 사람들이 많이 애독하는 성경은 아니나, 사실 심오하면서도 아름답고 리얼한, 그러면서도 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책이다.

*욥기의 기본적인 대략

-사실은 상황이 매우 드라마틱하다. 욥 때문에 마귀 앞에서 통쾌하신 하나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를 잃지 않았다.

-물론 욥은 처참하였다. 그는 정신과 영혼까지 극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리 하였고, 또한 사회적 고통까지 겪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장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군박을 당하게 된다.

-욥기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친구들의 군박과 거기에 대한 욥의 항변으로 이루어졌다.

-욥은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으며, 친구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가늠하느라 정신이 없고, 혹시 욥이 숨겨둔 죄악 그것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어떤 죄악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찰심정이 가득하여 욥을 도끼 눈으로 취조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욥에게는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울어줄 동정이 절실하였다.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도 자기가 당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데, 누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냥 처절한 상황이니 함께 울어달라는 것이다. 안아주고, 손을 잡아 주고, 등을 두드려 주고 그의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배려마저도 앗아가셨다. 평상시에 이 친구들이 절친이었으나, 지금은 친구가 아니라 냉혈한이요, 불필요한 경찰들이다.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
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19:21)

욥은 자기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게 아니다. 아프니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자신의 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기는 아브라함과의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도 의인, 욥도 의인인데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셨고,

욥을 통해서는 폭행을 당하고 정의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당하는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피력하셨다.

현재 욥이 겪는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격고 계시다는 뜻이다.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많은 인생들이 그 앞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영광이 소멸되고, 자신의 명예가 벗겨지는 경험을 한다.

10 사면으로 나를 혈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뿔뿔 뽑으시고

많은 인생들이 사면으로 공격을 받으며, 희망이 나무 뿔뿔 뽑힌 듯이 뽑힌 듯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낮선 사람이 되었구나 (욘19:1-13)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 하십니까?

꼭 죄가 있어서인가?

만약 당신이 오늘날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 만큼은 결코 그런 오지에서 재빨리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프리카 오지에서건, 미국의 맨하탄에서건, 강남의 아파트에서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존재한다.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다. 그만 울고, 다시 장사를 시작 하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시작은 할 수 있지 않겠니?

욥이 평생을 쌓아 놓은 신뢰가 있으니 장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이전의 형편보다 곱절로 나아진 사람이 된다.

불행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게 아니라, 절망이 나를 무너지게 할 뿐이다.

<찬양예배>

주제:성경공부 제목: 출애굽기 성경공부 말씀: 출애굽기 5장

구약 제2권

탈출기(출애굽기)

(히) שמות, Sh'mot (Names)

(그) ἔξοδος, Exodos/Eξοδος èxodos (Going Out)

(영) THE BOOK OF EXOD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B.C.1440-1400

제목

그리스어 70인역 성경(LXX) “Exodus”의 뜻은 ‘탈출’ 또는 ‘출발’이다. 본문의 첫 구절을 사용한 히브리 제목은 ‘웨엘레 쉘못’(그 이름들은 이러하니)이며, 본서의 내용 중 반 가량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과 관련되어 있다.

저자

이 책의 저자는 5경의 다른 4권을 함께 기록한 모세이다. 저자와 5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적 실재성(實在性)은 고고학적 발견들로 입증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

탈출기는 창세기의 기록이 끝나는 바로 뒤에 연결되어 시작된다.

요셉에서 모세까지의 기간이 1,6-7의 짧은 기록에 함축(含蓄)되어 있으며, 야곱의 후손이 전연 새로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의 가족으로써 한때 파라오의 귀한 손님이었던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轉落)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하였지만,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직접 역사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갈고 닦게 하신 후에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壓制)로부터 구출된 사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집트 탈출의 중심 사상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시고 선민(選民)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까지 확대된다.

이집트 탈출의 연대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출발한 연대에 관한 견해로는 다음 2가지 학설이 강력하다.

보다 빠른 견해는 이 대사건을 B.C.1445-1440년 무렵에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재위: B.C.1453-1419.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7대 왕) 치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심 사상

이집트 탈출 경험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성경의 구원 사상은 이집트 탈출의 계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노예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약의 이집트 탈출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세;가장 중요한 예언자 - 예수님-모세가 예언한 예언자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12지파 -12제자

유월절 식사 - 성만찬

유월절 어린양 - 예수님

홍해사건 - 세례식

광야에서 들어올려진 구리뱀 - 예수님의 십자가
10가지 재앙 - 예수님의 기적
광야생활 - 성도의 생활
가나안 입성 - 약속된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내용

책의 주제는 창세기 15장13-14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다.

개관

- 1장-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노예 생활
- 2장-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 도피 생활
- 3장- 모세의 소명
- 4장- 여호와와의 표징과 모세의 애굽 귀환
- 5장- 모세의 해방 요구와 바로의 핍박
- 6장- 하나님의 위로와 모세의 가문
- 7장-11장 모세와 바로의 대결- 10가지 재앙(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 11장- 마지막 열번 째 재앙의 경고
- 12장- 유월절 예식과 출애굽
- 13장- 초태생 규례 및 불기둥과 구름 기둥
- 14장- 홍해 도하
- 15장- 감사와 승리의 찬양
-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 17장- 르비딤 물 사건과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19장-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20장- 십계명

21장-24장 민법과 형법

25장-31장 성소와 성물들, 성막의 양식-(법궤·떡상·등대, 번제단, 제사장의 옷, 위임식, 상번제,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

33장-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34장- 두 번째 십계명 돌비와 갱신된 언약

35장- 성막 건축 재료와 백성들의 헌물

36장- 성막 건축

37장- 성막 제작- 법궤·떡상·등대·분향단

38장- 성막 뜰의 기구들과 총 성막 재료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과 성막 준공

40장- 성막 봉헌식